

사 설

선거도 포교다

한국불교 최대의 종단인 조계종이 선거열풍에 휩싸이고 있다. 제2기 개혁종단을 이끌어 갈 총무원장과 종회의장 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한 후보도 있다. 자천 타천으로 후보가 되어 선거캠프를 차리고 치열한 물밑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 특정인의 출마여부를 놓고 지지와 반대 공방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공표를 통한 언론플레이로 여론의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본지에서는 이미 이번 선거의 중요성과 함께 이러한 선거과정에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다시 지난 조계종 일부 본사 선거과정에서 나타났던 세속적 타락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권고했다. 과거의 추태가 되풀이된다면 한국불교의 장래는 어두운 수밖에 없다.

이번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불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 선거 자체가 바로 포교다. 입후보자와 선거권자의 일거일동은 불자나 국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비쳐진다. 여덟하게 치러지지 않을 때 불자들의 가슴이 아프고, 예비 불자나 대중들은 등을 돌릴 것이다.

이 점을 깊이 새긴다면 이번 선거 불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불자들의 귀의처 삼보의 하나인 승가의 선거가 아닌가! 아무리 평소 승단의 권위를 부르짖어도 승가본연의 자세를 잃고 후보자간의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이 난무한다면 모든 대중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상구보리 화화중생'에 생사를 결했다는 부처님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한번 공명정대한 선거를 촉구한다. 종단선거는 중한 중보에 따라

종교적인 의식의 일부본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세속처럼 지나치게 과열되어서는 안된다. 참선하는 자세처럼 조용함속에서 종단의 지도자가 자연스럽게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신하고 덕망있는 후보자가 추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 후보자들도 자신의 아집을 버리고 진실한 부처님 제자로 돌아가 선거에 임하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할 것이다. 자자와 포살의 정신으로 자신을 바로 알고 자신보다 나은 후보를 찾아 나서자. 후보 난립이 아니라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개혁종단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파수꾼이 될 후보로 단일화 시키는 것도 모양새가 좋을 것이다.

종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번 선거를 통해 그동안 다소 잃어버렸던 개혁종단 초기의 개혁정신과 열기를 되찾을 수 있어야 한다. 모범적인 승가상을 정립하는 절호의 찬스다. 선거불사를 승종진작의 기회로 삼아 선거후에도 화합승가의 참모습을 보여 주자.

이번 기회에 종단의 선거제도의 문제와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공론화시키는 것도 조심스럽게 검토되면 좋겠다. 물론 현행 선거제도가 종단개혁과정에서 여법하게 만들어졌으나 속세의 제도를 모방한 것은 틀림없고 종교단체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 비관적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아무리 민주적인 대의제에 입각한 선거제라도 선거후에 반목과 대립, 갈등의 부작용이 있다면 종단의 권위가 바로 서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기의 문을 열고 불국정토사회를 이룩해야 할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지나친 못됐거나 세속적인 선거행태로 우리불교의 전통과 역사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후보자와 선거권자 모두의 각성을 촉구한다.

한-중-일 불교수행단 '교류'

15~11월9일 한국수행단 중국불교 체험 '우호교류회' 북경서 실무추진위 구성

한국과 중국, 일본의 불교교류가 수행체험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15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북경성 광화사(廣化寺)에서 중국불교를 체험할 수행단 15명을 파견한다. 중앙승가대학원장 무비스님을 단장으로, 교육원 교육국장 정혜스님을 부단장으로 하는 수행단은 중앙승가대 화승으로 구성됐다.

수행단은 10일간 광화사 스님들과 모든 일과를 함께하며 중국불교의 수행을 체험하게 된다. 광화사측은 한국 수행단을

맞아 중국불교의 역사와 수행법 등을 알리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행단은 10일간의 수행체험을 마치고 26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중국 불교성지도 순례한다. 이번 수행체험은 한중일불교 우호교류회가 95년부터 97년까지 매년 실시해 온 교류대회에서 결의된 3국불교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한국 스님들의 중국불교 수행체험을 계기로 내년도에는 중국과 일본의 수행단이 한국 불교 수행단도 내년 일본을 방문 할

계획이다. 한중일 3국은 수행체험단을 비교적 젊은 스님들로 구성기로 했다. 21세기 동북아 불교의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각국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는 수행체험 교류와 별도로 각국 불교 성지순례 교류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국의 성지순례단 22명이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지난 9월에는 23명의 중국측 순례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11월에는 일본 순례단이 중국을 방문할 계획. 한편,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는 28일 북경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어 3국불교 교류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임연태 기자 (ytlm@buddhan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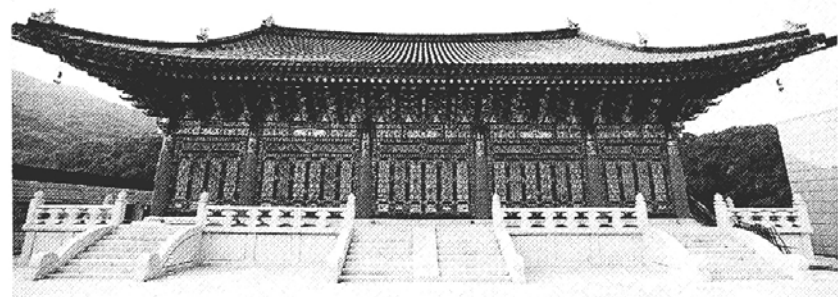
금오문도회 7차 수련회 금오문도회(회장 지명스님) 제7차 금오문도회 수련법회가 '화합과 단결속에 발전하는 한국불교'를 주제로 2백여명의 문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6일부터 7일까지 속리산 법주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수련법회에서는 송산스님(회계사 조실)이 '국제화시대의 선사상'을 함주스님이 '큰스님의 일생과 구도정신'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nia.com)

군법사후보 10명 확정 국방부, 내년 7월 임관

국방부는 9월 28일 98년도 군종사관후보생 최종합격자 45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조계종포교원과 개신교 군종포교사 교단에 통보했다. 내년 7월 임관에 예정인 이번 군종사관후보생은 불교 10명, 개신교 35명이다. 불교 군종사관후보생들은 졸업 후 행자교육과 3사관학교에서의 훈련을 거쳐 내년 7월 군법사로 임관된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21~22일 고창선운사서 방송작가 세미나

방송작가 세미나가 10월 21일~22일 전북고창 선운사에서 열린다. 15회째 맞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차문화'를 주제로 차의 이해, 향다법, 차음식문화 등의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된다. 방송작가협회 회원 및 불교방송, 불교TV 작가 60여명 참가할 예정이며 강의는 초의문화재단 혜성스님과 차음식전문가 이상수씨가 맡는다. 정성운 기자



○천태종 서울 관문사가 11일 낙성기념법요식을 계기로 서울지역 포교의 중심도량으로 자리잡았다. 사진은 연건평 6천책어평의 관문사 7층에 지어진 대보전.

천태종 '관문사시대' 열렸다

11일 낙성... 21세기 포교정책 변화 예고

천태종(총무원장 언덕)의 '관문사 시대'가 열렸다.

천태종은 11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관문사 육불전에서 낙성기념 법요식을 봉행했다. 또 낙성축하 불공법회와 한·중·일·미안마 4개국 대표 회향만찬을 가졌다. 이에 앞서 9일에는 함흥 및 특별기도, 10일에는 한·중·일·미안마 4개국 대표 상경례와 전야 예술제를 여는 등 '관문사시대'를 자축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지난 93년 10월 착공, 5년간의 공사 끝에 준공된 관문사는 대지 4천2백평, 지하 4층 지상 7층 연건평 6천5백39평의 전통미를 살린 현대식 건축양식으로 건립됐다. 지하 1층에는 귀빈식당과 대종식당을 갖추고 있으며, 지상 1·2층에는 종무소와 천태종보사, 금강불교대 등 중

무기관과 신행단체 사무실이 들어서 있다. 3층에는 기도실, 어린이놀이방, 동시통역시설을 갖춘 극회의실이, 4층부터 6층까지는 최대 1만명까지 수용 가능한 스탠드형 법당 육불전, 7층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극히 보기드문 7량 기와당우로 조성된 대보전이 자리를 하고 있다. 지하 4층부터 2층에는 3백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이 완비돼 있다. 관문사가 서울 강남지역의 포교관도에 적지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천태종은 매머드 종합불교회관인 총보산 구인사, 부산 삼광사, 울산 정광사 등과 함께 비약적 교세확장을 위한 전진기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nia.com)

종무전산화 장려

선학원 분원장 회의 재단법인 선학원 정기 분원장 회의가 15일과 16일 이틀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분원장 회의는 한마음선원 금융지원장 무애스님의 '장례 화장문화 선도에 관한 불교

인의 역할과 실제' 한양대 민회식 교수의 '다종교 시대의 한국 불교 위상' 등 특강과 재단 현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된다. 특히 선학원은 분원장 회의에서 사찰 종무 전산화 프로그램 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전산화 시연과 사용법을 설명한다. 임연태 기자

불교문화 체험기행

10월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강화 보문사, 선원사지, 무애원 등을 찾아갑니다. 마애관음보살상(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9호)과 천연동굴 법당(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7호) 등으로 널리 알려진 관음기도도량 보문사, 팔만대장경 관각성지인 선원사지 등을 답사합니다. 특히 무애원에서 설봉스님과 함께 흙을 밟으면서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체험은 울가를 소중히 추억만들기가 될 것입니다.

10월 "설봉스님과 함께 밟는 도자기"

'강화 보문사 · 선원사지 · 무애원'
 ○출발: 10월18일(일) 아침6시30분 조계사 앞
 ○회비: 3만5천원(점심 제공, 도선포 포함)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혜초여행사
 협찬: 일약약품

풍산한식 동기와 판매 및 시공

◆ 서풍짜리 기와때문에 천남짜리 대들보가 썩어서야?
 ◆ 사찰기와 재보수 이전 걱정 없습니다.
 천년을 이어갈 기와, 풍산 한식 동기와로 보존 하십시오
 전문 시공업체 — 대표 최 대 통 회장
成源産業 TEL. (02)3663-1737 FAX (02)3664-8216
 H.P. (011)445-7811 야간 (02)502-7811,7827

현대불교신문사 737-8881

현대만평 부구원

이웃처럼 교류해서...

법공양의 마음으로 불교발전에 기여해온 정진 4년을 축하합니다.

大韓佛教曹溪宗
 宗 正 老 天 月 下
 總務院長 太空明珠